

공항 지상조업 인력 회복 박차, 안전관리지원도 강화

- 항공운항 회복기 맞아 지상조업사 인력충원 지원 및 근로환경 개선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운항 회복기를 맞아 승객 이동, 항공기 견인, 수하물 하역 등 항공운항에 필수 역할을 하는 지상조업의 인력 확보와 함께 지상안전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운항 회복기에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상조업사에 대한 인력충원 지원 노력으로 '23년 5월 기준 코로나-19 이전 대비 86.4%(인천공항)를 확보하였다.
 - 국제선 운항이 집중되는 인천공항은 심야시간 출퇴근 지원을 위해 공항버스 심야노선 확대, 카셰어링 할인쿠폰 및 주차장 무료제공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고,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근무자에게는 최대 100만원까지 채용지원금(공사50:업체50)을 지원하고 있다.
 - 또한, 업무강도가 높은 수하물 상하역 분야의 경우 업무 경감을 위해 지원장비(Transfer Belt) 설치 등 조업환경을 개선하고,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.
- 지상조업 지원과 함께 안전강화 및 근로환경 개선도 추가로 추진한다.
 - 조업구역 내 사고예방 시설·설비*와 편의시설을 추가 확보하고, 근로자 안전교육을 위한 강의실과 장비 실습공간도 무료 제공('23.6~)하며, 근거리 낙뢰 발생 시 즉시 조업이 중단되도록 근거와 절차도 마련한다.
 - * 차량 안전장치(후방영상장치 등), 사고취약차량 발판 설치, 고소차량에 통과가능 높이 표기 등
 - 조업사의 친환경 차량 지원을 위해 공항 내 충전인프라 중장기 구축계획을 마련('23.下)하고, 공항 내 특수차량이 많은 만큼 제3의 전문기관이 검사하는 안전 체계도 도입한다.
-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항공운항 회복에 차질 없도록 지상조업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는 한편, 공항 내 안전사고 예방과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3434)
		담당자	사무관	김남극 (044-201-4225)
담당 부서	공항정책관 공항운영과	책임자	과 장	강철윤 (044-201-4347)
		담당자	사무관	송대종 (044-201-4344)



참고 1

지상조업 개요 및 차량 현황

□ 지상조업 개요

- 지상조업은 항공기가 착륙후, 이륙전 수행되는 지상업무로서, 국내 50개 민간등록*업체에 1만 2천 여명이 15개 공항에서 근무

* 항공사업법 제2조 제19호(항공기취급업) : 항공기에 대한 급유,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, 항공기 유도, 청소 등의 지상조업사업

* 등록기준 : 자본금 3억원 이상(법인), 필요한 장비 보유

구 분	업무내용	등록기준(장비)
항공기 취급업 (50개사)	지상 조업사업	• 항공기 견인차(토잉카) • 스텝카, 램프버스
	항공기 하역업	• 터그카, 컨베이어카, 수하물적재차
	항공기 급유업	• 급유차

□ 지상조업차량 현황

- 전국 15개 공항에 등록된 지상조업차량은 11종에 총 2,174대*이며, 20년 이상된 노후차량이 26%임

* (종류별) 터그카 747, 컨베이어 259, 토잉카 230, 엘디로더 209, 램프버스 175, 기타 554

** (연식별) 30년이상 128(6%), 20~30년 402(18%), 10~20년 654(30%), 10년미만 994(46%)

< 주요 지상조업차량 현황 >

		
항공기 견인차(Towing Car)	수하물 적재차량(LD Loader)	터그카(Tug Car)
		
램프버스(Ramp Bus)	급유차(Refueler)	수하물 운송장비(Conveyor)

참고 2

지상조업 지원 및 안전관리 강화 주요내용

< 국제선 회복 대비 지상조업(인천) 인력확충 지원방안 : '23.4 >

- ① (채용지원금) 인천공항공사와 업계가 매칭으로 '23년 신규채용자 중 일정기간(6개월) 이상 근속근무자에게 채용지원금을 지급('23.6)
 - (지원금액) 최대 100만원(인천공항공사 50, 업체 50)
- ② (채용행사) 상주기관 채용의날 행사 확대 개최(분기별→매달), 항공 산업 Job Fair 채용 박람회 개최('23.9)
- ③ (면접·교육장소) 지상조업사의 채용면접, 신규직원 교육을 위해 서울항공청, 인천공항공사 회의실 무료 또는 할인 대여('23.5)
- ④ (교통편의) 서울권(서울역, 고속터미널) 심야노선 신설 및 경기권(성남, 고양, 시흥 수원)의 심야노선 신설('23.5)
 - 심야시간대 종사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공항버스 무료탑승권, 카세어링 할인쿠폰 및 무료주차장 제공('23.6)
- ⑥ (조업환경) 수하물 상하역 업무경감 등을 위해 조업지원장비 (Transfer Belt*) 설치('23.11) 및 국산 개발·확대 설치('24.下)
 - * Transfer Belt: 수하물 벨트에서 짐을 내릴 때, 사람이 위로 들어 올리지 않고도 벨트에서 짐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장비
 - 인천공항공사에서 '여객터미널-원격주기장' 간 램프 셔틀버스를 운영
- ⑦ (근무환경 개선) 조업지역 내 공용휴게시설 확대(3개소 추가), 직원 식당 운영시간 연장, 정규출입증 발급기간 단축(2주 이내) 등
- ⑧ (외국인 고용) 업무강도가 높아 내국인 채용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수하물 상하역 분야에 외국인 고용 허용 추진('24년)

< 지상조업 안전관리 강화·지원 추가 방안 : '23. 6 >

- ① (충전 인프라 구축) 공사별 중장기 충전 인프라 구축계획*을 수립('23.下), 매년 충전기 보급실적을 점검하여 조업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
* (주요내용) 충전기 표준 규격, 연차별 충전인프라 도입계획 및 적정 이용료 수준 등
- ② (교육지원 등) 지상조업사에 공용 강의실, 실습공간 무료 제공('23.6), 지상조업차량 자율주행 핵심기술 R&D 추진('24)
- ③ (안전시설) 지상사고 예방을 위해 피해예방 시설·설비*를 추가 설치 (~'23.下), 사례 중심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및 실적 월별 점검(~'23.12)
* 차량 안전장치(후방영상장치 등), 사고취약차량 발판 설치, 고소차량에 통과높이 표기 등
- ④ (편의시설) 계류장 원격탑승시설에 화장실 운영(인천, 4개, '23.下), 지상조업사 업무·휴게공간 확충을 위한 관리동 신축(청주, '24~),
- ⑤ (재해 경보) 근거리 낙뢰 발생 시(공항 5km 이내) 즉시 조업이 중단 되도록 공항운영규정에 낙뢰경보 전파 근거·절차를 마련, 시행('23)
- 공항 내 낙뢰경보 전파시스템(사이렌, 조업중단 방송)도 단계적 구축
* 인천·김포공항('24), 그 외 전국 공항 순차 구축('25~)
- ⑥ (안전인식 개선) 지상조업사 대상으로 하반기 안전수칙 위반행위 특별단속('23.下~) 실시, 안전인식 공유 강화를 위해 운영협의회* 실시 확대(연 1회→2회 이상)
* 공항운영자 주관으로 지상조업사, 항공사 등과 이동지역 내 안전관련 정보공유 및 협의
- ⑦ (차량관리 개선) 지상조업 차량용 검사·관리 기준 신설('23.上), 인천·김포공항에 검사소 별도 설치 및 외부 전문기관 검사 실시('24~)